

농촌진흥청,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기술 현장 교육 진행

- 중동전쟁 위기 대응 일환...곡물 수급 불안 속 사료비 절감 해법 제시
 - 축산 명인-청년농업인 연계 현장 교육으로 기술 정착 지원
 - 장비 공동 활용 방안 논의...농가 중심 실효성 강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4월 27일 대전광역시에 있는 석척농장에서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 기술 현장 교육을 진행했다.

* 풀사료와 알곡혼합사료를 적절한 비율로 배합한 사료.

이번 교육은 최근 중동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야기된 사료비 상승에 대응해 사료비 절감 기술을 현장에 공유하고, 농가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축산 명인과 청년농업인, 국립축산과학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 제조 이론 교육을 받았다. 또한, 사료를 배합하고 급여하는 과정을 직접 시연하며 실무 기술을 익혔다.

축산 명인이 사료 배합 원리와 운영 기술을 상세히 설명해 이해를 도왔으며, 실제 농장 운영 경험을 살려 기술 도입 초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해결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전달해 현장감을 더했다.

이어 축산 명인과 청년농업인 등이 함께 자리해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기술 활용 방안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장비 투자 부담은 줄이고, 활용 효율은 높일 수 있게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 배합기를 2~3개 농가가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 현장 교육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향후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센터 윤호백 센터장은 “국제 정세 불안으로 가중되는 사료비 상승에 대응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료비 저감 기술 확산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기술이 농가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현장 워크숍 개요

담당부서 <총괄>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센터	책임자	센터장	윤호백 (033-330-0601)
		담당자	연구관	백열창 (033-330-0612)
<공동>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책임자	과 장	최소영 (063-238-7200)
		담당자	지도사	이경은 (063-238-7207)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

□ 개요

- 일 시: '26. 4. 27.(월), 13:00~16:00
- 장 소: 대전 석척농장 *백석환 대표(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명인)
- 내 용
 - 중등 대응 사료비 절감을 위한 자가 TMR 제조 방법, 배합비 프로그램 활용 방법 등 현장 교육 기술지원과 주관
 - 지역 단위 공동 장비 활용 관련 정책 토론회 및 의견 수렴 한우센터 주관

□ 일정

시 간	분	내 용	담당자
13:00~14:00	60	○ 한우 자가 TMR 현장 이론 교육 * 참석자: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센터, 기술지원과, 청년농업인	석척농장
14:00~15:00	60	○ 자가 TMR 제조 한우농가 현장 교육 * 참석자: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센터, 기술지원과, 청년농업인	석척농장
15:00~16:00	60	○ 한우센터 주관 지역 단위(2~3농가) 공동 장비 활용 관련 정책 토론회 및 의견 수렴 * 우수 농가와 함께하는 부서 워크숍(기술지원과, 한우센터)	한우연구센터